

응답과 행복의 열쇠, '성결의 복음'

성경 말씀을 밝히 알려 주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주 안에서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 축복받았다는 인도 성도들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바 되도록 표증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권능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권능의 차원에 따라 회한한 능과 기이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아주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은사 집회에서 기도 받은 뒤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위염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92호 2023년 4월 3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인도에서 온 소식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결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천국 설교를 통해 변화되니 제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아무나 람테케 성도 (44세)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와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사랑'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있던 짜증과 다툼, 교만 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을 채워가니 저는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요. 요즘은 '천국' 말씀을 들으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변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쏘나 타야데 성도 (40세)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를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 인간 경작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 등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지요.

요즘은 교만을 발견해 버리고자 힘쓰며,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회장님 설교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 말씀대로 살고 싶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와 남편을 악한 영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니타 성도 (30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아 왔습니다. 남편 또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쓰러지곤 하였지요.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저와 남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던 우리 영혼을 환한 빛의 공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느끼며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켰더니 축복이 넘칩니다"

라니 성도 (37세)



저와 남편은 우리를 진정 보호하고 축복하는 참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가게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해의 연합대성회와 수많은 영혼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내용이 담긴 '권능' 비디오를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켰더니 남편 월급이 5배 이상 인상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딸의 다리 신경 끊어짐과 제 손의 화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바산티 데비 성도 (40세)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니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 신경이 끊어져 걸을 수가 없었던 제 딸이 걷게 되었지요. 많은 의사를 만나 보아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화학약품으로 신발을 세척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어서 마치 플라스틱처럼 피부가 변했는데, 기도를 받은 뒤 깨끗해졌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응답

"죄악을 발견해 버리고자 힘쓰니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프리티 성도 (65세)



오래전부터 갑상샘에 문제가 생겨 온몸이 아프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안감으로 인해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녔지요. 저는 평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복음을 통해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사 53:5)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끊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자 힘쓰니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이후 은사 집회에 유튜브로 참석해 당회장 직무 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병원 검진 결과, 갑상샘이 정상이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22)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베풀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진 바 되도록 표증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증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을까요?

1. 표증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받아 만물의 영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니, 마치 고아와 같이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남겨져 질병과 슬픔,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들을 알려 주셨으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말라기 등 시대별로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어떻

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셨지요. 또한 앞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낼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 오늘날까지 성령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표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증 된 사람들의 사명

1)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질병이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다만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표증 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과 온갖 괴로움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줄 수 있

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쉽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층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지요. 이로써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진 바 되는 신앙이 되어야 영적인 믿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세상 것은 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될 뿐 아니라 강건함을 받으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 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육을 입어 보셨기에 인생들의 고통에 대해 더욱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으므로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님처럼 섬기고 붙좃았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할 정도로 간절한 사랑을 소유했지요(갈 4:15).

3)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표증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난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구절들과 비유, 묵시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친히 풀어 주셔야만 알 수 있지요(눅 12:42).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을 이뤄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4)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로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출 33:20)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직접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지전능하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며 또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주었지요. 즉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하며 각색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행 2:22).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르는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막 16:20).

사도 베드로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가 지나갈 때는 병든 사람을 거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습니다(행 5:15). 또한 사도 바울의 권능은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지요(행 19:12). 이같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그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요 4:48). 오늘날은 더더욱 큰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표증으로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히 13:8).

3. 표증 된 사람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

표증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으며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써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

음이 주어져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의인이 되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 7:21 ; 롬 2:13). 즉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해 주는 표증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게 되며 빛 가운데, 의와 진리, 선 가운데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면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응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표적이 따르고(막 16:17~18), 이들을 통해 교회들을 깨우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증이 없어도 중심에서 영적인 것을 깨우치고 온전한 성결과 능력과 권세를 사모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갖가지 표증들이 있음으로 인해 믿음이 더해지고 천국 소망이 넘쳐나서 세상의 오락 등을 쉽게 끊을 수 있지요. 또한 세상 것을 버릴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표증 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신속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증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해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범사에 행통한 축복을 받으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증거

‘권능’(權能)이란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임위 있고 영광스러운 힘을 말하고, 능력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능 받은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권능의 차원에 따라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시편 62:11)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 [奇事]

‘기사란 천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를 움직이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 곧 눈, 비, 바람, 구름, 기온, 기압 등 대기 현상을 조절하는 권능이지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니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으며(삼상 12:18),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왕하 20:11).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

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지요(왕상 17~18장 ; 약 5:17~18). 만일 해와 달, 별 등을 움직인다면 이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당한 조건과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 때나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 [表蹟]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하며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째졌던 다리가 길어지며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역사 등이 이에 속하지요. 이러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능력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이는 신유의 은사 즉 병 고치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신유의 은사는 감기, 암, 폐병 등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나 균에 의한 병을 기도로 낫게 하는 것이지만, 능력 행함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은 은사로서 주어지거나 영적인 사랑의 힘과 의인의 간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능력 행함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

희한한 능의 예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지요. 기이한 일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열 재앙(출 7~12장)과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꼼짝 못 하던 사람을 치료하신 것(눅 5:17~2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까닭입니다.

“시력과 청력이 회복돼 아주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손정오 집사 (74세, 3대대 17교구)



약 1년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양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눈이 아른거려 물체의 형상만 볼 뿐 책을 보거나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교구장님을 비롯해 주위 분들이 은사 집회에 참석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앞두고 환자 접수를 하였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도 매일 참석해 치료받고자 간절히 기도 로 준비하였지요.

드디어 3월 24일, 아침부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GCN방송을 통해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준비 찬양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환자 기도 받을 때는 누군가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후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리더니 눈도 맑아진 것 같아서 눈을 뜨고 화면을 보니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간증을 접수하기 위해 교회에 전화했는데 접수자의 목소리도 또박또박 잘 들렸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이러한 체험을 하니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염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받았습니다”



윤금옥 집사 (76세, 중국 2교구)

오래전부터 위염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작년에는 식사를 못 할 정도로 심해져 병원 진단을 받으니 ‘위암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대교구장님께 말씀드려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그 뒤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시커먼 변을 보았지요. 이후로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소화불량 증세는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젊을 때부터 앓아온 기관지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 천천히 걸어야 했고, 다리의 통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은사 집회 때 치료받고자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와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3월 24일, GCN방송을 통해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 온전한 심일조를 하지 못하고, 시부모님 살아 계실 때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것’ 등이 떠오르면서 오열하며 통회자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뭔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과연 소화불량 증세가 싹 사라져 소화가 잘되었고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다리 통증도 치료받아 계단을 편안하게 오르내리며 빨리 걸어도 호흡이 전혀 가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